



『메트로폴리스의 불온한 신여성들』의 저자 중 한 명인 임옥희 교수는 여성들이 혼자 외롭게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사진=unsplash)

1920년대를 활보했던 불온한 신여성들

임 옥 희

휴머니티스칼리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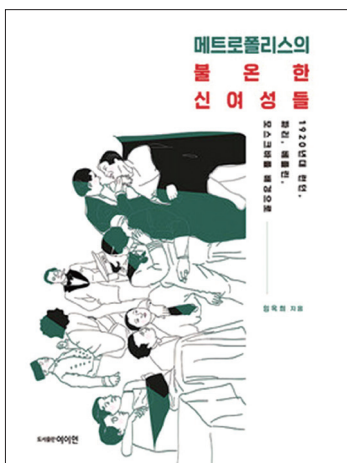
이제 보통명사가 된 근대 초기 신여성에 관한 기존 연구는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 그로 인해 신여성은 동질적이고 하나인 것처럼 범주화되었다. 잘 교육받은 민족의 선각자 모던걸(modern girl)이거나 아니면 그들을 흉내내는 영혼없는 짝퉁 모단걸(毛斷)로 구분되었다. 원본 신여성, 모조 신여성, 구여성 하는 식의 위계화와 구별짓기는 문제적이다.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에서의 할머니들처럼, 한글조차 배우지 못하고 일찍 시집가서 ‘구차하게’ 살았던 구여성들은 유교 가부장제에 그저 부역하는 여성들이었을까?

신여성의 범주 모던걸과 모단걸?

새로운 상상으로 신여성들의 이야기를 다시 쓴다면,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 근대 신여성들을 새

롭게 접근해보자는 야심찬 기획 아래 다섯 명의 여자들이 뭉쳤다. 필자는 까마득한 시절 외국문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서구의 신여성을 담당하기로 했다. 한국학 중앙연구원 지원사업 프로젝트였으므로, 각자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책으로 묶어내기로 했다. 필자로서는 1920년대 서양사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시절에 관한 호기심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발굴할 이야기는 ‘천지배까리’였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법, 일화적인 이야기들을 일관성있는 서사로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야기의 뼈대에 구멍이 뽕뽕 뚫려서, 말 그대로 다공적인 텍스트가 되어버렸다.

버지니아 울프가 ‘빅토리아조 치마를 걸치고 페미니스트 게릴라 투사’로 활약했던 1920년대 서구의 메트로폴리스는 전쟁과 전쟁(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예외적인 시공간이었다. 참호 속에서 살던아가 부서지는 경험을 했던 남성들에게 그 시절은 상실의 시대, 악몽의 역사였지만 여자들에게도 그랬을까? 전쟁은 여성들에게 폭력과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에게는 남성이 비운 공적 공간에 침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새로운 상상으로 근대 신여성들의 이야기를 다시 쓰자는 야심찬 기획 아래, 다섯 명의 여성 저자들이 뭉쳤다.

남성 결핍의 타자화로서 여성적 존재

전후의 신여성들은 근대적인 현상이자 증상이었다. 근대 유럽은 자신이 이성의 완벽한 구현체라는 터무니없는 ‘유로-나르시시즘’에 바탕했다. 근대 기획으로서 자유, 평등, 박애를 주장하면서도 그들은 무수한 타자들을 발명하고 지배해왔다. 이때 타자화되는 존재들은 편리하게도 ‘여성적인 것’으로 등치됐다. 식민지 원주민들은 동물적이고 여자 아이들처럼 미숙하므로, 계몽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합리적 판단과 자기절제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여성적 존재였다. 이처럼 서구 백인 남성의 결핍은 타자화되어 여성적인 속성으로 재배치됐다. 이렇게 파악한다면 근대의 신여성은 남성적 근대의 산물인 동시에 증상이 된다.

그처럼 이성적이고, 자기절제에 최적화된 서구 근대 백인 남성 주체들은 어떻게 하여 거둬들인 전쟁의 광기 속으로 끌려 들어갔을까? 이런 자기모순을 그들은 설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남성의 성적 보호와 도움이 없어도 일군의 여자들은 동성끼리 쾌락을 공유하면서 레즈비언 시학에 바탕하여 레즈비언 르네상스를 선언했다. 『고독의 우물』

“

남성의 성적 보호와 도움이 없어도 일군의 여자들은 동성끼리 쾌락을 공유하면서 레즈비언 시학에 바탕하여 레즈비언 르네상스를 선언했다.

”

의 작가 레드클리프 홀은 보브헤어 컷을 하고 외알안경을 걸치고 텍시도를 차려입고 담배를 피워물었다. 레즈비언들이 옥외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물랭루즈에서 춤추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다. 크로즈드레서인 미시와 무대 위에서 격렬한 키스로 소동을 일으켰던 작가 폴레트(Sidonie-Gabrielle Colette)에 의하면 당시 외알안경을 걸치고 단추 구멍에 흰 카네이션을 꽂는 것은 레즈비언의 기호였다. ‘도착적인’ 여성들의 출현은 이성애 남성들의 성적 주도권 주장을 허구로 만들었다. 그들은 전쟁으로 입은 남성들의 치명적 상처에 자괴감의 소금을 뿌렸다.

“나는 아프다 고로 존재한다” 근대적인 코기토 조롱

1920년대 메트로폴리스는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관대’했다. 레즈비언 멜랑콜리아들은 파리의 레프트 뱅크에서 레즈비언 해방구를 형성했다. 그들은 레즈비언으로서 자부심과 사회적 비체로서 수치심 사이를 오갔다. 거짓말쟁이 히스테리증자들은 ‘나는 아프다 고로 존재한다’를 통해 근대적인 코기토를 조롱했다. 그들은 아픈 몸이라는 가장 무도회를 통해 여자에게 주어진 제자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예술적, 지적 능력을 무대화할 수 있었다. 남자형제들과 더불어 경쟁했던 붉은 혁명투사들은 더 많이 챙겨간 형제들과 경쟁하면서 남녀에게 동등한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좋았던 ‘황금 시절’은 1930년대 나치의 득세로 가라앉았다.

다양한 여성모형을 제공함으로써 매번 처음처럼 ‘새롭게’ 출발한다고 불평하는 현재의 여성들이 혼자 외롭게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책으로부터 위안을 얻었으면 한다.